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1.5.(목) 11:50	배포일시	2017.1.5.(목)
기재부	기획재정담당관 윤석호(044-215-2510) 창조정책담당관 신준호(044-215-2530)	담 당 자	최진규 서기관(044-215-2511) 김영진 사무관(044-215-2543)
산업부	산업정책과장 황수성(044-203-4210)		우성훈 서기관(044-203-4211)
국토부	기획담당관 강주엽(044-201-3201)		이두희 서기관(044-201-3197)
공정위	경쟁정책과장 정진욱(044-200-4300)		김성균 서기관(044-200-4301)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형주(02-2100-2830)		나혜영 사무관(02-2100-2832)

「튼튼한 경제」 분야, 기재부 등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 권한대행, 5개 부처 장관에 일자리 창출, 위험요인의 철저한 관리,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성공적 완수,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인 대처를 적극 당부
-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 활력 제고방안'을 모색

[개 요]

- 기재부·산업부·국토부·공정위·금융위 5개 부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5일(목) 09:30,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튼튼한 경제'라는 주제하에 2017년도 합동 업무보고를 하였음
- 오늘 합동 업무보고는
 - ① 권한대행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고,
 - ② 5개 부처 장관이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 ③ '경제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라는 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되었음

【 권한대행 당부사항(모두 말씀) 】

- 권한대행께서는 우리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 당면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이루기 위해 결연한 의지와 자세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였음
- 금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 일자리 확충을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어야 하며,
 - 미국 추가 금리인상,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음
- 이와 함께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하여 오늘 보고한 내용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5개 부처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주요내용】

- 권한대행 모두 말씀에 이어 5개 부처 장관들은 「2017년도 경제정책운용방향」(16.12.29. 발표)을 구체화한 소관 부처별 실천계획인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경제안정과 미래성장 기반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플러스 회복과 신산업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는데 주력하고,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주거 안정과 우리 기업의 전략적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 확대를 중점 추진할 것임을 보고

- 정채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소비자와 함께 활력있는 시장 구현을,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시장 위험요인 관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둘 것임을 보고

【 정책토론 주요내용 】

- 합동 업무보고에 이어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진행: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있었음

<리스크 관리: ① 서민경제 위축 완화>

- 토론 발표자로 참석한 외부전문가는 대내 경제 리스크 측면에서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음
-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하여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화훼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하여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 명절에 농축수산물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감안하여,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였음

<리스크 관리: ② 금융시장 불안 대비>

- 미국발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 부위원장(정은보)은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대응 체계 강화방안을 설명하였음

- 먼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국내외 시장동향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즉시 재가동하는 등 비상조치를 취하여 시장불안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 뿐만 아니라, 금리 상승에 따른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는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함께, 서민과 한계차주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등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리스크 관리: ③ 규제개혁 >

- 단기리스크 관리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 약화라는 중장기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었음
- 이와 관련, 공정위 부위원장(김학현)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공무원들이 시장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구체적 예로 자동차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과도하게 인정하거나 보호기간을 설정할 경우, 경쟁업체 진입이 불가능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대체부품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권 보호기간이 20년이나, 자동차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는 36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대체부품 신시장 창출과 소비자 이익 보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또한, 에어비앤비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허용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새로운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가치가 있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리스크 관리: 권한대행 당부사항>

- 권한대행께서는 올 한 해 우리 경제의 화두는 첫째도 리스크 관리, 둘째도 리스크 관리라고 하시면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 경제팀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험요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재차 당부하셨음

<경제활력 제고방안: ①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 확대>

- 최근 유가회복, 미국의 인프라 투자계획 등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기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우리 건설사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국토부 차관(김경환)은 우리 건설사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였음

-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쿠웨이트 스마트시티 등 중점관리 프로젝트에 대해 외교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지원하고,

-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는 정보수집, 중소기업 우선 진출 등 단계적 진출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주국가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음

- 나아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타겟시장과 전략부문 선정, 벤처펀드 조성과 ODA 연계 등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역량을 결집하여 팀코리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 기획·금융·설계·시공·운영까지 함께 발주하는 형태의 사업

<경제활력 제고방안 ② 수출확대>

-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등 내수에서 부족한 부분을 수출 등 대외부문에서 채워야 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산업부 차관(정만기)은 금년 역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큰 상황이지만, 주도면밀한 대응과 준비를 통해 수출 플러스 전환을 달성하겠다고 하였음
 - 우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수출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 * 500여개 국제전시회 참가지원, 국내 570여회 무역전시회 개최 등
 - 기업들의 수출자금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도 작년보다 8조원 늘어난 총 229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 중기청장(주영섭)은 중소기업의 세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였음
 - 이를 위해 R&D, 자금, 판로 등 모든 중소기업 사업을 수출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여, 수출역량별 맞춤형 연계지원을 추진하고, G2G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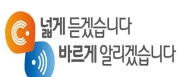
<경제활력 제고방안: 권한대행 당부사항>

- 권한대행께서는 최근 심리위축, 부동산시장 둔화 등으로 그간 경기를 지탱해 온 내수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음을 우려하시면서,
 - 경기 급락을 막고 그간 어렵사리 이어온 경제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경기관리에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다만, 지난 2년간 감소했던 수출이 작년 11월 이후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어, 내수보강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로를 대외부문에서 찾는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 유가회복, 미국 신행정부의 인프라투자 계획 등을 감안하면 해외 인프라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 수주 가능성, 우리기업의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겟국가를 선정하고 금융지원, 개발협력 사업, 정보력과 외교력 등을 총동원하여 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을 정교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음
 - 특히, 주요 지역 및 부문별로 전직 대사·장관 등을 전담 특임 대사로 임명하여 수주 활동을 측면 지원하는 등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하셨음
- 이와함께 서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음
- 권한대행께서는 각 부처는 혹시라도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없는 지 세심히 살피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신 한편,
 - 토론 중 건의된 청탁금지법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셨음
 - 또한, 민생 안정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인 점을 명심 하고, 최근 대학 창업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벤처·창업붐을 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음

첨부 1. 합동 업무보고 개요

2. 5개 부처 2017년 업무계획 보고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1 행사 개요**가. 일시·장소**

- 행사명 : 「튼튼한 경제」 분야 정부 업무보고
-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공정위, 금융위 합동보고
- 일시 : 2017. 1. 5.(목) 09:30~11:3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
- 토론 : 경제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 방안(30분)

나. 참석

- 보고부처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 보고부처외 : 청와대, 국무총리실, 정당인사, 외부인사 등

2 부처별 보고 내용

구분	내용	보고자
기재부	▪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활력은 키우겠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산업부	▪ 수출 플러스 회복과 함께, 신산업 성과 창출 본격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부	▪ 집 걱정은 덜고, 교통 편의는 더하고, 기업활동은 촉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공정위	▪ 기업·소비자와 함께 활력있는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	▪ 금융부문 방파제를 탄탄하게 쌓고, 민생 안정에 매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 세부 내용은 각 부처에서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 참고

<기획재정부>

-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 기반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
 - 적극적 거시정책 및 가계부채·부동산시장 관리, 글로벌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한 대내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 서민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소비투자 활성화,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 재정혁신의 가속화,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국고운용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화
 - 공공기관 개혁의 지속, 산업·기업 구조조정,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지원, 미래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구조개혁 및 성장기반의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수출 플러스 회복과 함께 신산업 성과 창출 본격화에 주력
 - 주체·품목·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을 가속화 하고, 보호무역 확산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수출 플러스 기조 정착
 - 화장품·의약품 등 소비재 및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고, 229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도입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
 - * 지재권, 의료, 콘텐츠, 관광, SW, 물류, 교육, 금융, 유통 등
 -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12대 신산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주력
 - 조선 등 구조조정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보완하고, 「기업활력법」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금년 중 40건 이상의 선제적 사업재편 추진
 - 4대 정책지원*을 중심으로 12대 신산업 성과를 본격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ESS 등 에너지신산업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17. 민관합동 14조원)와 인센티브를 강화
- * △규제완화, △R&D·인력 등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창출

<국토교통부>

□ 서민주거안정과 전략적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을 중점 추진

- 공공임대 12만 가구, 주거급여 81만 가구, 대출지원 18만 가구 등 **총111만 가구의 주거를 지원하고,**
 - * 행복주택 2만호 / 뉴스테이 2.2만호 입주자모집, 각각 15만호 공급 계획
-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층·신혼부부·노년층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실시
- 단순 도급공사에서 투자개발형사업(PPP)으로 전환하는 해외 건설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대응**
 - 투자개발형사업 시장 진출을 위한 전담 지원기구 설립 및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를 조성하고, 공기업의 운영 노하우와 민간의 설계·시공역량을 결합한 민관 협력 모델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소비자와 함께 활력있는 시장 구현에 총력

- 선도자의 기술 선점에 따른 독과점 형성 및 그 폐해 발생 우려 높은 반도체, 제약 등 **지식산업 감시 강화**
 - 장기간 독과점 폐해가 지속된 이동통신·영화 분야에 대한 **경쟁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처
-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 위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법집행 강화**
-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해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 및 **생활화학제품, 어린이용품** 등의 **부당 표시·광고 집중 감시**
 - 제품의 위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위해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리콜제도 내실화** 등 추진

<금융위원회>

-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고, 가계부채 등 잠재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 * (주요과제) ① 주택연금 개선, ②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강화, ③ Pre-packaged plan 활성화 등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틀 마련
 -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민생안정에 총력
 - * (주요과제) ① 청년·대학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② 원금상환 유예 등 주담대 차주 보호 강화
 -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대폭 확충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업 경쟁력 제고
 - * (주요과제) ① 정책금융·기술금융 공급 확대, ② 2단계 핀테크 로드맵 마련, ③ 바이오페이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